

성적 따라 등록금 정책 효과 상이 3·4등급 ‘합격-비용’ 선호도 교차

낮은 성적일수록 경제적 부담 영향
수도권·비수도권 수험생간 격차도
“내년 등록금 무상화, 효과 미지수”



지난달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뤄지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운데, 올해 수시모집에서 지방국립대 지원 양상이 출신 지역과 내신 성적대에 따라 달랐다. 내신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지방국립대를 택한 비율이 높았고, 등록금 지원 정책의 영향을 꼽은 응답도 많았다. 다만 수도권 수험생의 지방국립대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보다 크게 낮아, 등록금 정책이 수도권 쏠림 완화에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37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5%가 수시모집에서 지방국립대에 지원했다. 지원 이유는 내신 성적대에 따라 달랐다. 1등급대 수험생은 ‘내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를 꼽은 비율이 76.8%로 가장 높았고, ‘등록금·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는 26.1%였다.

낮은 성적대일수록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4등급대 학생 응답부터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55.4%)가 합격 가능성(49.9%)을 앞질렀다. 5등급 이하에서는 경제적 요인(62.6%)과 합격 가능성(44.3%)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등록금 정책이 실제 지원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도 성적대별로 달랐다. 지방국립대 지원자 2056명 중 41.8%가 등록금 지원 정책이 지원 결정이나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내신 등급별로는 1등급대가 27.5%, 5등급 이하가 51.1%로 23.6%포인트(p)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 3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신설했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를 묶은 사업으로, 지역 대학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 수도권 쏠림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7학년도 1학년부터 시작해 2028학년도 1~2학년, 2029학년도 1~3학년으로 확대하고 2030학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넓힐 계획이다. 지역인재장학금도 선발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은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증액한다.

다만 수도권 수험생의 지방국립대 지원 비율이 비수도권과 격차를 보이고 있어, 등록금 정책이 수도권 학생의 지방대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고교 소재 지역별로 비수도권 6개 권역 수험생의 지원 비율은 모두 70%를 넘었고, 광주·전라가 80.0%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기·인천은 39.8%, 서울은 25.6%에 그쳤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등록금 지원 정책이 일부 수험생의 지방국립대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방국립대 지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보다 수험생의 지역과 성적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이 서울 하위권 대학과 지방 거점국립대 선택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현판식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 디지털자산시대 인재 키운다

블록체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추진
5개 기업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인하대는 지난 12일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현판식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는 인하대와 인천대, 인천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인하대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마련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특정 분야의 과목을 집중적으

로 이수하며 역량을 쌓도록 한 학습 과정으로, 학생들은 디지털자산의 구조와 금융 제도를 익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습한다.

기업 연계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다루는 문제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설계한다. 시제품을 개발해 결과를 발표하는 과제도 수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는 하나금융TI, 한국디지털에셋(KODA), NHN KCP, 업비트, 유가랩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각 기업은 사업 분야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제시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프로젝트 평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고려대, 20일 ‘AI Tech Day 2026’ 개최

메타·애플 등 AI 전문가 참여

고려대학교가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 등 AI 기술의 최신 흐름을 짚는 자리를 마련한다.

고려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하스퀘어에서 ‘AI Tech Day 2026’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아마존 웹서비스(AWS), 메타, 애플, 엔비디아 등 기업의 AI 전문가와 서울대·KAIST 교수진이 참여한다.

강연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의 최근 동향과 연구·산업 분야의 적용 사례를 다룬다. 연사들은 산업·연구 현장의 적용 사례와 전망도 소개할 예정이다.

ICT명품인재양성사업단과 초지능연구센터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포스터·데모 세션도 진행한다. 아울러 참여 학생들을 위한 기업 홍보와 채용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려대와 AWS가 공동 진행한 ‘AI Innovators Challenge’의 최종 프로젝트 시연 및 시상식도 열린다. 참여자들은 생성형 AI와 AWS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한 서비스를 공유한다. /김수정 기자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신청 쉬워진다

교육부 ‘유보통합포털’ 창구 통합
선제 알림·찜하기 등 편의성 개선

교육부가 어린이집 입소 및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유보통합포털’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협력해 기존 ‘아이사랑(어린이집 입소)’과 ‘처음 학교로(유치원 입학)’로 운영하던 신청 창구를 통합했다.

입소·입학 정보 선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청 일정과 기관 검색 등 관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보를 미리 알린다. 학부모들은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복지멤버십)로 수신할 수 있다.

‘찜하기’ 기능도 도입한다. 찜하기는 관심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털에서 검색해 한 목록에 저장하는 기능으로, 기관별로 검색해 신청하던 절차를 개선했다.

서류 제출도 간편해진다. 신청 때마다 정보를 입력해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어린이집 6종, 유치원 14종의 증빙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찜하기와 자녀 등록은 오는 2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입소·입학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이다. 교육부는 신청 일정과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자료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AI 평가지원시스템 보급 확대

7개 시도교육청 ‘채움AI’ 공동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AI’를 전국 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북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과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채움AI는 답안을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교사의 채점 업무를 돕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6개 학교에서 시스템을 활용한 AI 채점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운영 학교를 135개교로 늘렸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교육청들은 채움AI를 공유하고 서논술형 평가 문항을 함께 개발·검토할 계획이다. 관련 평가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부산·인천교육청과, 지난달 전북·전남·광주교육청과 채움AI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해 AI 채점 엔진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평가 자료와 연구 성과를 공유해 학교 현장의 서논술형 평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논술형 평가가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방식이라며, 교육청 간 협력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의 평가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이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은 2027학년도 전기 신입생 원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차세대콘텐츠·방송영상 융합’과 ‘미디어전략·데이터커뮤니케이션’ 등 2개 전공이다.

‘차세대콘텐츠·방송영상융합전공’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AI 콘텐츠·저널리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에 관한 이론·실무 교육 등을 진행한다.

‘미디어전략·데이터커뮤니케이션전공’은 마케팅과 편성 전략, AI·빅데이터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등으로,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